

시니어 모델로 '인생 2막'... "건강한 삶 도전"

●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MGMA)

멋지다+grace 합성어...광주·전남·북 40세 이상 80명 제21회 충장축제서 홍보모델·패션쇼 등 열정적 활동

"인생 2막 시니어들이 멋지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제21회 충장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전 홍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한 '시니어'들이 있으니 바로 '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MGMA)'다.

머찌그레이스는 멋지다와 우아하다(Grace)의 합성어로, 지난 2022년 11월13일 설립됐다. 현재 현재 광주와 전남·북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시니어 80여명이 소속돼 있다.

모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 모델에게 어울리는 옷을 연구하는 사람, 모델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하는 사람 등이 모인 머찌그레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택(71)씨는 인생 2막을 맞은 시니어들이 멋지고 건강한 삶을 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협회를 만들었다.

한 대표는 4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된 뒤 시니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며 "머찌그레이스 설립 전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지역 모델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 주로 서울에 가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서울을 오가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돼 광주에도 협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이 의기투합해 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설립 이후 KBC광주방송의 '7학년 주식회사'에도 출연한 협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축제에 참여한 협회는 설립 이후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도 손을 보태고 있다.

올해는 충장축제 홍보를 위해 광고 및 포스터 모델로 함께했고, 자체 SNS를 통해 이를 알리기도 했다.

대표 활동은 총장로 4가에서 열린 '옛날 교복 패션쇼'다.

멋스럽게 교복을 차려입은 회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고춤'을 추



'인생 2막'을 맞은 시니어 모델들로 구성된 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MGMA) 회원들이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옛 교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 제공>

며 거리 곳곳을 누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충장 22에서 개최한 '우리 동네 패션왕'에서 패션쇼를 선보이는 등 추억의 충장축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21회 충장축제는 끝났지만 머찌그레이스의 도전은 계속된다.

한성택 대표는 "시니어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신을 가꾸는데 열심"이라며 "이들을 대

상으로 '워킹대회' 같은 행사가 펼쳐진다면, 충장축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니어 산업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점점 더 활성화 되는 충장축제에 이를 접목시키면 전국의 시니어들이 한 데 모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시니어들의 열정 있는 도전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고 웃어 보였다. /안재영기자



도경건설, 광주여대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광주의 전문건설업체 도경건설이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기탁식은 지난날 31일 진행됐으며, 도경건설 신현국·박정연 대표이사와 광주여대 이진희 학생처장이 참석했다.

신현국 대표이사는 "명문대학교인 광주여대 발전에 일조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주여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대표이사는 "지역 유일 여대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광주여대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대학

교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진희 광주여대 학생처장은 "어려운 경기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주시 감사하다"면서 "기탁 의사에 맞게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2013년 4월 설립된 도경건설은 포장공사, 토목공사 전문회사로 겨울철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 결빙방지기술'을 상용화했다. 또 올해 10월에는 국토부 건설신기술인증 획득으로 업계 중심에 있는 지역 우수기업이다. /김다기기자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현지조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4일 고흥군 신흥-용동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여수소방서 화확119구조대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총 사업비 537억원 규모의 신흥-용동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22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18.9%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 보고를 받고 안전 관리계획 적정 여부 및 주요 도로 시설물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뒤 "도민 안전을 우선시해 견

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수소방서 화확119구조대를 찾아가 여수소방서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현지 조사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접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행할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목포여성인권센터 '성매매방지법 20주년 토론회' 성료

목포여성인권센터는 "최근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성매매방지법 20년, 너머'를 주제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목포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젠더 기반 폭력을 추방하는 여성 인권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다.

토론회에서는 전남지역 성취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동부권에만 1곳이 있어 급속히 늘어나는 온라인 상의 성매매와 성취취를 예방하고 늘어나는 청소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아젠다 센터가 서부권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의

견이 나왔다.

또 외국인 여성의 한국 입국과 성산업 유입 과정에 대한 인신매매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성매매와 성취취 과정에서 여성의 심리·신체적 어려움과 탈성매매 이후의 삶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실질적 도움에 대한 정책적 정비,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성산업 축소 위한 성매매방지법 집행력 강화, 성매매 여성 보호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안내와 연대가 요청됐다. /목포=정혜선기자

국립순천대,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대상'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은)는 "최근 대학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제25회 전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창업동아리 '하루청킴'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30개팀이 경합을 벌여 7개팀이 전남지사상을 수상했다.

국립순천대학교에서는 '하루청킴'팀(팀장 백인서·식품공학과)이 '5가지 테마 그릭요거트'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순천을 담은 DIY 비바리움 키트'를 선보인 '레몬트리'팀(팀장 박재원·조경학과)이 우수상을, '감사 매칭·관리 기



반 발레 올인원 솔루션'을 제안한 '비기너스'팀(팀장 김병석·법학과)과 '개인 맞춤형 로컬 식당 추천 서비스'를 소개한 '모이나'팀(팀장 정우선, 컴퓨터공학과)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전남 사랑의열매, 배분분과위원회 평가지원단 통합워크숍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 열매)는 4일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여수 JCS호텔에서 '2024년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및 평가지원단 통합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및 평가지원단은 전남 사랑의열매가 추진하는 배분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통해 배분기관들의 사업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통합워크숍은 전남 배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전남 사랑의열매가 지역 복지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 선도적인 배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한 후 2025년 배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주성학기자

'11월 5·18민주유공자'故 김연호씨



11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김연호(사진)씨가 선정됐다.

4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김씨는 1962년 4월4일 생으로, 1980년 5월18일 친구를 만나러 금남로에 갔다가 상무대로 연행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같은 달 21일 석방됐다.

이후 충남대학교에 수석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상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고문 후유증으로 퇴사한 뒤 1987년 사고로 사망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김연호씨는 제1묘역 3구역 35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담양 가사문학면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담양군 가사문학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음식점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손속속 가사문학면 새마을부녀회장, 김종곤 가사문학면장,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16명이 함께했다.

이창인 가사문학면 복지팀장과 생활지원사들은 직접 담근 고추장을 경로당과 지역의 홀몸 어르신, 수급자 가정 50여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손속속 부녀회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사문학면을 위해 새마을부녀회가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왕경선 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장 '세이프 대상' 선정...1계급 특진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4일 '제6회 소방공무원 세이프(SAFE) 대상에 광산소방서 왕경선 소방장이 선정돼 1계급 특진했다"고 밝혔다.

세이프 대상은 소방청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행정업무·화재조사·상황실 등 내근 경력 2년 이상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과 소방청장 표창이 주어진다.

왕경선 소방장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소방안전교육 운영 계획 특수 시책 수립 등의 공적으로 제6회 소방공무원 세이프 대상에 선정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정 비즈니스를에서 제6회 소방공무원 세이프 대상에 선정된 왕경선 소방장에게 소방위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선경기자

결혼

▲박정숙씨 장남 백종진(남해화학 전기기사)군, 니중국(오룡철물·공구 대표)·양남희씨 장녀 행요(고창식품 산업연구원 연구개발실 연구기획팀 연구원)랑=10일(월)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062-710-4000, 010-3610-8703)

▲김원봉·임혜경씨 장남 진호(베스트디지털 제1연구소 연구원)군, 윤사선(건양건설 대표)·허윤숙씨 차녀 지원(MCM Korea 디자이너)랑=16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로리도 55(갑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10-5467-4150.